

한글 맞춤법과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이영숙(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1.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가. 표기 대상: 표준어
1.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 의미 파악이 쉽도록 실사 부분(주로 명사 부분)의 표기를 고정시켜 적는 것 예) 발이/발을/발에서(바치/바틀/바테서), 추워서(춡어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 총칙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① 표기 대상: 표준어

예) 오뚝이/오뚜기/오뚝이, 쌍둥이/쌍둥이, 돌/뚝

② 소리나는 대로: 지나친 형태 위주의 표기를 하지 않음

예) (변칙 용언) 추워서/춡어서, 들으니/듣으니

③ 어법에 맞도록: 의미 파악이 쉽도록 실사(명사류) 부분의 표기를 고정시켜 적음.

예) 닭이/달기, 발을/바틀, 꽃나무/꼐나무, 값도/갑또
반듯이(直)/반드시(必)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알아보기 쉽게 적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서는 현대에 사용하는 말을 주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전에 사용했지만 현대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은 한글 맞춤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은 뜻이 있는 말(주로 명사류)일 경우에는 원래 쓰던 형태대로 쓰고 보조적인 말(주로 조사, 어미 등의 문법 형태)일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원형(기본형이나 어근)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형대로 쓰고 원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의 대 원칙: 원형(기본형)이 확실하면 원형대로, 그렇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예를 들어, '더욱이'라는 말은 '더욱'이라는 말에 '이'가 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더욱'이라는 원형을 살려 '더욱이'로 쓴다. 하지만 '아무튼'이라는 말은 '아룡다'라는 원형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이라고 쓰지 않고 '아무튼'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설거지'라는 말은 '설겅다'(설엇다)라는 원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 원형이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설거지'라고 쓰지 않고 '설거지'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리고 '반드시'는 '반

듯이'로 쓰게 되면 '반듯하다'라는 원형에 '이'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다'의 뜻이 되지만 '반드시'로 쓰게 되면 '반듯하다'라는 원형과 관계가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필코, 꼭'의 뜻이 된다.

2) 띄어쓰기의 원리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구분지어 표기한다.: 단어, 복합어 실사가 잘 드러나도록 띄어 쓴다.: 실사가 아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아/어'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이나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보조 용언,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실사와 허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쓰되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띄어쓰기의 원리

- ①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
- ② 단어: 단일어, 복합어
- ③ 실사가 잘 드러나도록: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씀.
- ④ 실사와 허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말 : 띄어 쓰되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보조 용언: '아/어' 뒤, 의존명사+하다/싶다

예) 도와 주다/도와주다, 척하다/척 하다

단위성 의존명사: 숫자가 앞에 오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쓸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 2004년도, 삼학년, 9등 302호, 다섯시 오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원칙은 모든 단어를 띄어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간단하다. 하지만 무엇을 단어로 볼 것인가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단어는 '사람'과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고속도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일어가 합쳐져서 다시 하나의 단어가 된 복합어로 나눌 수 있는데 단일어나 복합어는 모두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띄어 쓰지 않는다. 그러나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단어가 되어 복합어가 된 것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아직 복합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래서 복합어와 관련된 말은 띄어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해당 복합 형태가 사전에 있으면 복합어로 인정하여 붙여 쓰지만 사전에 있지 않으면 띄어 쓴다.

띄어쓰기의 대 원칙 1: 하나의 단어인 단일어나 복합어는 붙여 쓰고,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는 단어 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말 중에는 전문 용어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학 용어인데 인류의 최대 질병 중의 하나인 AIDS를 한국어로 말할 때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한다. 그런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병 이름이어서 하나의 단어같이 사용은 되지만 전체를 복합어로 인정하여 하나의 단어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는 구를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단어라기보다는 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로 이루어진 구는 단어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병 이름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붙여 쓸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 표시를 두어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고유명사도 전문 용어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용어와 달리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는 '국립 국어 연구원 어문 규범 연구부'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와 같이 하나의 단위끼리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성과 이름을 항상 붙여 써야 한다.

띄어쓰기의 대 원칙 2: 본래의 뜻을 지니고 있는 요소는 띄어 쓰고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요소는 붙여 쓴다.

(용언^어미. 체언^의존) 명사, 접두사^체언^접미사)

우리말 중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과 같이 상황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말들이 있다. '들'은 기본적으로 복수를 만들어 주는 접미사이고 접미사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들이 '등(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그는 사과, 배, 밤 들을 가지고 왔다'에서와 같이 사용되면 '들'의 품사가 의존 명사가 되고 의존 명사는 독립적인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말이 된다. 의존 명사는 별개의 단어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쓴다. 이와 같은 예는 '상(上)'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이 원래의 뜻인 '~위에 있다'와 같이 사용되면 명사가 되어 '지구 상에 있다'나 '도로 상에서 주웠다'와 같이 띄어 쓰지만 '미관상, 사실상, 외관상'에서와 같이 '~에 따름'의 뜻으로 쓰인다거나 '인터넷상, 통신상'에서와 같이 '공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접사가 되어 붙여 써야 한다.

어미와 명사 간에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어라.'나 '그녀가 예쁜데 한 번 말을 걸어 봐.'에서와 같이 '-는데' 형태로 쓰이면 어미가 되어 붙여 쓰지만 '잘 데를 찾아야 한다.'나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에서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면 명사가 되어 띄어 써야 한다. 이는 어미 '-는데'와 의존 명사 '바' 사이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에서는 '-는데'가 어미로 쓰여 붙여 쓰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다'나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일찍 맞겠다.'에서와 같이 앞에 나온 말의 내용을 가리킬 때에는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띄어 쓴다.

2. 한국어 바로 쓰기 맛보기

- ① '했습니다/했음니다', '있음/있슴'
- ② 날으는 원더우먼
- ③ 오늘은 웬지/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 ④ 내가 할게/할께
- ⑤ 짜장면 곱빼기

- ⑥ ‘며칠’ 과 ‘몇 일’
- ⑦ 한 살박이/한 살배기, 장승박이/장승배기
- ⑧ 청컨대/청건대, 생각컨대/생각건데
- ⑨ 독자적인 기업을 경영함으로써/경영하므로써
- ⑩ ‘넙죽/넙죽 절하다’ , ‘넙죽/넙죽 받아먹다’

3. 국어 어문 규정대로 쓰기

다음 문장에서 국어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나는 오랫동안 고향에 들렀다가 들녁에서 날으는 새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조카와 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그동안 고향을 자주 찾아 오지 않았던 댁가를 제대로 치뤄야 했습니다.

4. 한국어 바로 쓰기의 실제

- 1) 나는/날으는, 거친/거칠은, 녹슨/녹슬은
:ㄴ+관형형 어미 " ㄴ탈락
 - ① (나는, 날으는) 원더우먼
 - ② (녹슨, 녹슬은) 칼날
 - ③ (거친, 거칠은) 저 들판에 서 있는 소나무
- 2)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 동사 + ‘고 나서’
 - ①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
- 3) 되어/돼 : 축약형 n 복원형
 - ① 그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뉘) 것이다.
 - ②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돼라).
 - ③ 선생님께서는 내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돼라고) 말씀하셨다.
- 4) -ㄴ게, -ㄴ걸
 - ① 그 일을 내가 (할걸, 할겘) 그랬지?
 - ② 그 일은 제가 (할게요, 할겘).
 - ③ 그가 집에 (도착했을까, 도착했을까)?
- 5) 던/든: ‘더’ " 과거(회상) 시제
 - ① 어제 (왔던, 왔든) 사람
 - ② 그녀는 얼마나 (울었던지, 울었든지) 눈이 퐁퐁 부었다.
 - ③ (가든지, 가던지)(오든지, 오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 ④ (배든, 배던)(사과든, 사과던) 마음대로 먹어라.
- 6) 된소리의 표기
:ㄱ,ㅂ+된소리"평음 표기,
의성의태어"된소리 표기
 - ① 국수, 색시, 몹시
 - ② (딱따구리, 딱다구리)

③ (쌘쌘하다, 쌘쌘하다)

④ (뚝뚝하다, 뚝뚝하다)

7) 썩이다/썩히다

① 너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니, 썩히니)?

② 그는 그의 재주를 (썩이며, 썩히며) 살고 있다.

8) 알맞은/알맞은, 맞은/맞는, 느냐/냐

: 동사+'-느'(현재 시제)

① (알맞은,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② (맞는, 맞은) 해답을 찾으시오.

③ 꽃이 (예쁘냐?, 예쁘느냐?)

9) 오/요 : 연결어미"요, 종결어미"오, 첨사"요

① 공사 중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② 그 아이는 밥을 참 잘 (먹어요, 먹어요)

③ “너 숙제 다 했니?” “(아니오, 아니요), 조금 남았어요.”

④ 증인은 예, (아니오,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⑤ 다음 달까지 벌금을 모두 (내시오, 내시오).

⑥ 이것은 (책이오, 책이오) 저것은 공책이다.

10) 하므로/함으로써 : (으)므로"어미, 으로(씨)"조사

① 그 기업은 독립 경영을 (실천하므로써, 실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② 그는 (부지런하므로,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③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써, 공부함으로써)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로서/로써 : 로서"자격, 로써"수단, 도구

① (나로서는, 나로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② 그녀는 (눈물로서, 눈물로써) 내게 호소하였다.

12) 사이시옷 : (된소리, ㄴ소리+ㄱ, ㄷ, 모음)인 합성어

: 한자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사이시옷 없음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예외)

① (머리맡, 머리맡)

② (전세방, 전셋방)

③ (장미빛, 장밋빛)

④ (회집, 횃집)

⑤ (예사일, 예삿일)

⑥ (인사말, 인사말)

13) 한자 합성어의 두음 법칙

: 고유어, 외래어 + 두음법칙

: ㄴ, 모음 + 두음법칙(렬, 률의 경우)

(출석율, 출석률) / (법율, 법률) / (결렬, 결렬)

(백분율, 백분률) / (낙녀, 낙뢰) / (뇌성, 뇌성) 벽력

(독자투고난, 독자투고란) / (어린이난, 어린이란)

(가십난, 가십란) / (학습난, 학습란)

- ① (짐승만, 짐승 만)도 못한 (철수만, 철수 만)보면 집을 떠나 고생을 하다가 (3년 만, 3년만)에 돌아온 동생 생각이 난다.
- ② 너는 (너대로, 너 대로), 나는 (나대로, 나 대로) 살아야겠다.
- ③ 사람은 (애쓴만큼, 애쓴 만큼) 얻는 법이다.
- ④ 그는 허공을 (응시할뿐, 응시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 ⑤ 어서 (바른대로, 바른 대로) 말하여라.
- ⑥ 앞서 (지적한바,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었던바, 두었던 바)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어 내었다.
- ⑦ (떠난 지, 떠난지) 5년이나 된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 돌아올 지) 잘 모르겠다.
- ⑧ 그가 (오는지, 오는 지) 잘 모르겠다.
- ⑨ 네가 (무엇인데, 무엇인 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 ⑩ 비가 (오는데, 오는 데) 어딜 가니?
- ⑪ 사람들은 그를 (설득하는데, 설득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⑫ 그녀는 얼굴도 (예쁜데, 예쁜 데)다가 마음씨도 곱다.

26) 성과 이름, 호칭어

:성+이름"붙여 씀, 성+호칭어"띄어 씀

- ① 우리나라에는 (김씨,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 ② (김 교수, 김교수)를 만나 (서 화담, 서화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③ (선우현, 선우 현)

27) 접두사, 접미사 " 붙여 씀

- ① (제2 차, 제2차, 제 2차) 세계 대전
- ② 그 물건은 (얼마짜리, 얼마 짜리)냐?
- ③ 콩 (100원어치, 100원 어치)만 주세요.
- ④ 그는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인사 드리러) 학교로 갔다.
- ⑤ 그들은 어제 적에게 (봉변당한 후, 봉변 당한 후) 자신들의 군사를 (훈련시키기, 훈련 시키기) 시작했다.

28) 단위성 의존명사 : 숫자의 개념 " 붙여 쓸 수 있음

- ① (제3장, 제3 장)
- ② (삼학년, 삼 학년)
- ③ (다섯시, 다섯 시)
- ④ (1번지, 1 번지)

29) 고유 명사, 전문용어 : 단어별로 띄어 씀(원칙)

→ 고유명사 :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음

→ 전문용어 : 붙여 쓸 수 있음

- ① 한양^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 ② 송문^중학교
-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 ④ 탄소^동화^작용
- ⑤ 청소년^보호법

5.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 1) 가리키다/가르치다
- 2) 갑절/곱절
- 3) 그을리다/그슬리다
- 4) 껌질/껌데기
- 5) 꼬리/꽂지
- 6) 늘이다/늘리다
- 7) 다르다/틀리다
- 8) 다리다/달이다
- 9) 두껍다/두텁다
- 10) 띠다/두텁다
- 11) 로서/로써
- 12) 마중/배웅
- 13) 맞히다/맞추다
- 14) 매다/메다
- 15) 발견/말명
- 16) 벌이다/벌리다
- 17) 벗겨지다/벗어지다
- 18) 보전/보존
- 19) 봉우리/봉오리
- 20) 부치다/붙이다
- 21) 비치다/비추다
- 22) 빨리/일찍
- 23) 씹이다/씹히다
- 24) 알갱이/알맹이
- 25) 알은체/아는 체
- 26) 알다/열다
- 27) 윗옷/웃옷
- 28) 이/이빨
- 29) 일절/일체
- 30) 잃다/잊다
- 31) 입/부리/주둥이
- 32) 작다/적다
- 33) 장사/장수
- 34) 큰소리/큰 소리
- 35) 튀기다/부치다, 지지다
- 36) 파괴/붕괴
- 37) 헤어지다/헤어지다
- 38) 혼동/혼돈
- 39) 훌뭉/훌뭉